

9/4/16

설교 제목: 보복하지 말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 복음 5:38-42

(마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절관주** 레 24:20

(마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 5: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 5: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원수 사랑은 커녕 이웃 사랑도 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가끔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기르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지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을 원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고 받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악한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가치관에서 자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각별합니다.

제가 2013년 4월 8일 목사 고시를 볼 때 고시 과목 중 하나로 설교문 작성을 해야 했는데 그때 지정된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30,094 절이나 되는 성경 구절 중에서 바로 이 구절을 제 목사 고시 설교 본문으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대에 가슴이 저립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듣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Tit for Tat!' '받은대로 갚아 주는 것'

솔직히 고백하면 이 문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자주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변화되었고 달라졌지만 전에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받은대로 돌려 주어야만, 아니 받은 것보다 몇 갑절 이상 돌려 주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자유로워졌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문제로 부딪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8 절 율법과 39-42 절 하나님의 법입니다.

1. 먼저 율법인 본문 38 절을 보십시오.

(마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출 21:23-25, 레 24:19-20, 신 19:21 에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 24:19)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레 24:20)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 19: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동태 복수법 즉 가해자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형태의 벌로 갚아 주라고 하셨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카인의 5 대손인 라멕이 남긴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남긴 말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창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인간은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당한 피해의 몇 배로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은 보복을 자신이 당한 수준으로만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이 다하는대로 더 큰 보복을 가하지 말고 받은 대로만 갚아 주라는 말입니다.

동태 복수법은 인간의 무한 보복의 본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는 악을

(마 5: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 5: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 선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보복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은 것도 더욱이 보복을 선동하는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약자를 보호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그 폭력은 점점 더 무시무시한 폭력을 낳곤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 한 명이 라이벌 폭력배 집단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맞은 쪽에서 각목을 들고 떼거리로 몰려가서 라이벌 집단의 깡패 몇 명 갈비뼈를 부러 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칼부림이 일어나고 한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면전이 벌어지겠지요.

폭력은 결국 더 큰 폭력을 불러 올 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칙은 바로 이러한 과잉보복을 금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 때려서 보복하라는 보복법이 아니라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 때리지 말라는 과잉 보복을 금지한 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다툼에서부터 국제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이 과잉 보복 금지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합니다.

그러면 며칠 후 자살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희생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를 보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폭격합니다.

9.11 테러나 이라크 침공 같은 가공할 만한 폭력과 파괴 행위 역시 보복을 주고 받으면서 그 규모가 그렇게 커져 갔던 것입니다.

이 폭력의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개인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당한 사람이 이 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보복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닭 한 마리의 손실이 생겼을 경우 재판관을 찾아가면 재판관은 이 법을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닭 한 마리로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힘없는 사람이 닭 한 마리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그대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닭 한 마리 손실을 입혔는데 힘 있는 자라고 와서 닭 한마리 대신 소 한 마리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법은 보복을 용납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와같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법이 그 당시에 보복법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키는 자들이 이 법을 근거로 누구나 자기가 당한 일에 개인적으로 그만큼 복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대 맞았으면 꼭 한 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선하고 거룩한 법입니다.

내가 닭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도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배상시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처럼 율법을 악한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2. 주님께서는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치도록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뺨 한 대 맞았으면 나도 상대방 뺨을 한 대 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 악인과 싸우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 주라고 하십니다.

또 억지로 5 리를 같이 가게 하면 10 리라도 같이 가 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 관한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 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등의 모든 피해와 손상에 관해서 보복하기보다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도둑을 맞는다거나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복수를 해야 속에 응어리진 한이 풀릴 것 같지요.

그러나 복수라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시다.

복수한다고 가해자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부러진 내 이빨이 새로 납니까?

내 눈을 뽑았다고 상대방 눈을 뽑으면 내 눈이 새로 생깁니까?

세상에 눈 없는 사람만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 집 유리창을 깬다고 나도 몽둥이 들고 가서 그 집 유리창을 두들겨 깨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했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3.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보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벨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벨도 없이 그렇게 사신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온갖 능욕과 멸시 가운데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요.

당신이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바로 그 분이 나에게 찾아 오셔서 나도 당신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당했던 모욕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과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이복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자신앞에 나아와 그들이 한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자 그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창 50: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본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숫자만큼 늘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